

청와대, 외국인 관람객 급증에 맞춰 편리한 외국인 예약시스템과 참여콘텐츠 확대 제공

- '23년 12월 13일(수), 뉴스1이 「예매부터 온통 한글...외국인 관광객은 어려운 청와대」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기사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.
- 2022년 5월 청와대 개방 이후 외국인 관람객은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. 작년 청와대 외국인 관람객은 31,886명이고 올해는 11월 30일 기준 108,458명으로 증가했습니다. 전체 관람객 중 외국인 비중도 작년 1.1%에서 올해 5.6%로 높아졌습니다.
- 이와 같은 사실은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 관광지 조회 현황을 보면 더욱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.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데이터랩에 따르면, 외국인들이 많이 조회한 서울 시내 관광지 중 청와대는 일본어권과 중국어권(중간체) 2위(영어권 16위)에 올라 있습니다.
- 이에 청와대는 급증하는 외국인들의 관람 편의를 위해 외국어를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. 작년 개방 이후 한글과 영어 안내문(리플릿)을 제공하고 있으며, 올해 11월부터는 일본어와 중국어로도 제작해 무료 배포하고 있습니다.
- 또한, 내년 초부터는 청와대 누리집도 영어, 일본어, 중국어로 제공할 예정이며, 관람 예약 페이지에서 외국인은 간단한 이메일 인증만으로도 예약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. 아울러 현재에도 예약 없이 방문할 경우 하루 최대 2천 명까지 현장에서 바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.
- 올해 내국인 관람객도 상반기 월평균 167,367명에서 하반기 월 178,465명

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 이는 개방 첫째 특수효과와 별개로, 청와대가 역사성을 지닌 대통령 공간으로도 잘 보존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올해 3차례(6월, 9월, 12월)에 걸쳐 진행한 야간관람(4만 5천7백여 명 참여), 야외 조각 전시, 관저 복원, 다도 프로그램 등 즐길 거리가 넘치는 국민 휴식공간으로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. 이러한 문화콘텐츠는 외국인도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.

- 이처럼 청와대는 정부의 2024년 외국인 관광객 2천만 명 유치 목표에 맞춰 외국인 관람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. 문화체육관광부는 청와대가 외국인들에게 더욱 관람하고 싶은 관광명소가 되도록 예약과 관람, 휴식, 참여콘텐츠 등 세부 분야를 더욱 꼼꼼하게 점검하고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.

담당 부서	청와대 관리·활용기획과 (사업담당)	책임자	과장	최영진 (02-3771-8631)
		담당자	서기관	박진석 (02-3771-8641)

국민과 함께하는
세계일류 문화매력국가

GANGWON
2024



YOUTH
OLYMPIC
GAMES

대한민국
지책브리핑

